



고려해운

홈페이지 신규 오픈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9월29일 보다 나은 서비스와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신규 오픈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오픈하는 고려해운 홈페이지(www.ekmtc.com 또는 www.kmtc.co.kr)에서는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던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재구성했으며, 디자인 개선을 통해 고객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려해운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신규 홈페이지에서는 E-Business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e-KMTC' 메뉴가 새롭게 개설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KMTC'에서는 스케줄 조회에서부터 Cargo Booking, S/R(Shipping Request)작성 및 제출, 수입업무지원, 실시간 화물 추적까지 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림H&L

대림코퍼레이션에 흡수합병

대림 그룹 물류계열사인 대림에이치앤엘(대림 H&L, 대표 기의석)이 대림코퍼레이션에 흡수합병된다.

대림코퍼레이션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대림에

이치앤엘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림코퍼레이션 이사회는 지난 9월11일 이같이 결정했으며 합병비율은 1대 0.7886536이다. 대림코퍼레이션은 9월26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의결한 후 11월5일 최종 합병등기할 계획이다.

대림에이치앤엘은 지난 2001년 복합운송주선 및 해운중개업체로 설립됐으며 2004년 11월 가스선 DL아자레아호를 매입하고 외항운송사업도 시작했다. 지난해엔 매출액 2015억원, 영업이익 120억원, 순이익 123억원의 영업성과를 올렸다.

대한해운

최고기업대상 '운수창고 부문' 수상



대한해운(회장 이진방)이 사단법인 한국경영인협회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7회 2008년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에서 '운수창고 부문' 최고 기업상을 수상했다.

각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거행된 시상식의 수상업체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협조를 받아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1,7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200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매출액과 자산규모 각 500억원이상 및 영업이익률 5%이상, 부채비율 200%미만, 경상이익 2년 연속 흑자 등의 조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규모, 성장성, 수익

성, 안정성, 주주 중심경영 등 5개 부문을 정밀 심사해 수상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매출 1조9,710억원, 영업이익 3,500억원의 실적을 올린 해운기업으로서 지난 2007년 시가총액 상위 100대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집계 결과 1인당 영업이익의 기업 1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대한해운은 2005년, 2007년에 이어 올해 2008년에도 운수창고부문 최고기업 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총 12개 기업이 수상했다.

또한, 대한해운은 연세대학교 부속 한국해로연구회에 1억원 추가 기부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10억원을 발전기금으로 지원했다고 9월29일 밝혔다.

대한해운은 연세대학교 총장실에서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 김창식 사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해양산업 발전과 고 이맹기회장이 역점부문으로 강조하였던 해로 연구회 기금 마련을 위해 1억원 기부증서 전달 행사를 가졌다.

해로연구회는 해상의 교통 및 운송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1981년 외무부 산하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에 사무국을 두고 설립되어 국내 주요 대학은 물론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해군 등의 정부기관과 다양한 전문가드를 회원을 구성하여 해상수송로의 안전보장, 해운물류 등 해양과 관련된 폭 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한편, 대한해운은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운 연구활동 및 학술 교류를 위해 한국해운연구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0억원 규모의 금액을 기부하는 등 끊임없는 학술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TX팬오션

컨선부문 신개념 BI구축

STX팬오션(대표 이종철 부회장)은 그동안 진행해온 컨테이너선 사업부분의 서비스 확장 및 선대 확충 등과 더불어 대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고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BI(Business Intelligence)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1일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BI시스템은 STX팬오션이 본격적으로 컨테이너선 사업에 진출하며 준비해 온 정보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양한 각도로 분석된 데이터와 정보의 통합으로 시장 분석 및 이에 따른 내부 업무 Process개선 및 생산성 증대 기대 효과와 무엇보다도 경영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일류선사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유코카캐리어스

신용등급 'A' 유지

자동차 전문운송선사인 유코카캐리어스(대표 안예빈왕)가 최근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모두 신용등급 A등급에 '안정적(Stable)'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진정평가(주)와 한국기업평가(주)는 9월18일 나란히 유코카캐리어스의 제4회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 평가신용평가기관들이 유코카캐리어스의 신용등급을 A로 평가한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과 신조선 발주·항만인프라 확충 관련 투자부담 등의 위험요인이 있으나 현대기아차그룹과의 장기운송계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다가 주주사들의 직간접적 지원 가능성 등으로 재무용통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9월 세계적인 자동차 운송선사인 Wallenius Lines과 Wilhelmsen ASA이 80%, 현대자동차그룹이 20%를 출자해 설립한 유코카캐리어스는 현대상선의 자동차운송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일약 세계 2위권의 자동차 운송선사로 뛰어오른 바 있다.

8월말 현재 사선 12척, 용선 79척 등 총 91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보유하고 있는 유코카캐리어스는 지난 4월에 현대기아차그룹과 장기운송계약을 갱신하면서 독점적 수송권 보유기간이 연장됐다. 유코카캐리어스는 이번 장기운송계약 갱신으로 2009년 말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해상수출물동량 100%를 운송하게 되며 2011년까지는 80~65%, 2015년까지는 60%를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2년 현대자동차그룹과 계약체결당시 7년동안 고정 운임으로 계약을 체결한 유코카캐리어스는 이후 연료유가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지난 2006년말까지는 병커C유 파생상품에 가입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였으나 파생상품 계약이 종료되면서 2007년과 2008년 영업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장기운송계약을 갱신하면서 운임에 변동 유가할증료를 적용기로 하고 2010년부터는 2년마다 원가변동분을 감안해 운임을 조정기로 합의해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코카캐리어스는 자동차운반선 총 8척을 신조 발주해 건조중이며 평택항 자동차전용터미널

을 개발하는 등 투자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무안정성이 저하된 상황이다.

유코카캐리어스는 현대삼호중공업에 8000ceu(ceu는 자동차 1대)급 자동차운반선 4척을 총 3억 3916만 달러에, 현대중공업과 8000ceu급 자동차운반선 4척을 총 3억 4790만 달러에 발주해 건조중에 있다. 이들 선박은 2009년과 2010년에 차례로 인도될 예정이다.

평택항 동부두에 건설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 터미널은 총 2개 선석으로 총 1014억원이 투입돼 올해 10월 1선석, 2010년 10월에 나머지 1선석이 준공돼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크로드

전남대 학술연구상 제정



단과대학 단위로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학술연구상'이 제정된다.

파크로드(사장 염은선)는 9월25일 전남대 사회과학대학과 발전기금 약정 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7000만원씩 앞으로 10년동안 총 7억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과학대학은 '파크로드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및 관련규정을 만들고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파크로드 최우수 학술연구상',

파크로드 최우수 강의상, '파크로드 저술상' 등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파크로드 최우수 학술상'은 연구, 강의, 봉사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된 최우수 교수 1명에게 수여되며 상금으로 연구지원비 2000만원이 주어진다. 또 학생들로부터 우수한 강의평가를 받은 교수에게는 '파크로드 최우수 강의상'을, 저술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교수에게는 '파크로드 저술상'을 각각 수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사회과학대학은 파크로드 발전기금 중 일부를 교수·대학생의 국제교류 활동 및 대학(원)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활용키로 했다.

이정록 학장은 "30여 년간 인연을 맺어온 염 대표이사는 한때 대학교수를 꿈꿨을 정도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높다"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교수들과 후배들이 이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거액의 발전기금을 흔쾌히 내놓았다"고 전했다.

한편, 염 대표이사는 전남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 1996년 주식회사 파크로드를 설립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160여 개 한국선주협회 해운선사 중에서 열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염 대표는 '기업경쟁력은 직원을 존중하고 기업 문화에 좌우된다'는 경영이념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직원의 인화'를 강조하고 매주 1권의 책을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재교육과 독서에도 힘쓰고 있다.

팬스타라인닷컴

부산불꽃축제 크루즈 상품 불티

팬스타 크루즈가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불꽃축제에 발맞추어 팬스타 불꽃놀이 크루즈를 선보인다.

불꽃놀이 크루즈는 부산불꽃축제기간인 10월 17

일부터 18일까지 2일 동안 메인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광안리와 광안대교 바다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고의 전망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특급호텔급 식사와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품격있는 객실에서의 숙박까지 포함돼 있다.

팬스타 크루즈 담당자는 "매년 불꽃축제가 있을 때마다 100만명 가량의 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이 있어왔다. 팬스타 불꽃놀이 크루즈는 교통이 편리한 영도크루즈 터미널에서 출발해 메인쇼가 시작되는 바다 위에서 편안하고 여유롭게 불꽃놀이도 즐기고 맛있는 식사와 공연, 이벤트 그리고 객실에서의 휴식까지 취할 수 있도록 세심히 기획한 상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잊지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팬스타 불꽃놀이 크루즈 고객에게는 독일 소세지와 맥주를 제공하는 '옥토버 페스티벌' 행사를 열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며 행사기간 동안 자가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 마음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대리운전회사와의 연계 서비스까지 실시한다.

팬스타 크루즈는 "지난해 불꽃놀이 크루즈 당시에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어 현재 허니호의 객실은 모두 예약이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드림호를 추가로 투입해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 전격적으로 한정 예약을 접수하며, 드림호의 경우도 빠른 속도로 예약이 되고 있어 불꽃놀이 크루즈를 즐기고 싶은 고객들은 서둘러 예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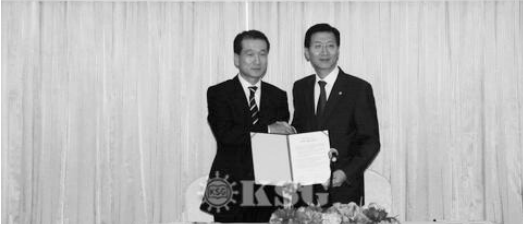


한진

신세계 물류부문 인수

신세계 - 한진 전략적 제휴 협약식

일자 : 2008. 9. 17(수) / 장소 : 조선호텔



한진(대표 석태수)과 신세계(대표 구학서 부회장)가 양사의 핵심 역량인 유통과 물류의 상호 이익 증진과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물류전반에 걸쳐 포괄적 범위의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9월17일 서울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에서 한진 석태수 대표와 신세계 허인철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제휴 협약식을 갖고, 물류 전반에 걸쳐 양사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선언했다.

이번 제휴로 신세계는 자사의 운송 물류 부문을 한진에 위탁하며, 해외 소싱 상품의 운송 등에 대해서도 한진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품의 보관 및 통과 물류 기능을 하는 이마트 물류센터는 현재와 같이 신세계가 직접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번 협약에서 한진은 신세계의 물류 자회사인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세텍스)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는 당분간 별도법인으로 운영하고 세텍스의 종업원 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는 물론, 기존 세텍스의 고객사 및 영업소, 지입차주, 협력회사 등에 대한 계약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전략적 제휴로 한진은 신세계의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향후 추가적인 물류 아웃소싱에 대한 우선권도 보장 받게 됐다.

또 유통산업부문에 전문 3PL(제3자물류)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신세계그룹의 해외 상품 소싱과 연계한 국제물류사업의 확대를 통해 글로벌 물류산업 리더로서의 발전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됐다.

이번 제휴에 대해 한진의 석태수 대표는 “이번 전략적 제휴가 업계를 대표하는 유통과 물류 일류회사 간의 전략적 제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 허인철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이 양사의 전문 고유 영역인 유통 및 물류산업의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양사의 상호 발전은 물론, 대 고객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한진중공업

해경 중형경비함 “해우리호” 진수



한진중공업(사장 박규원)은 9월30일 해양경찰청 및 부산지역기관장, 조선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0톤급 최신경비함 ‘해우리 11호’ 진수식을 개최하였다.

해우리함은 올 7월 1척, 9월에 2척 진수된 동형선 에 이은 4번째 300톤급 중형경비함으로 2006년 9월에 계약, 상세설계와 선체 블록공사 및 대조립 과정을 거쳐 이번에 진수행사를 갖게 되었으며, 2009년 인천해양경찰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해우리는 해경 마스크트로 '바다의 가족과 친구로서 봉사한다', '바다의 안녕과 번영을 누린다'는 뜻이다.

고장력 강판과 알루미늄 선체로 구성된 해우리호는 엔진 4기와 워터제트 4축으로 최고 속도 35노트를 낼 수 있는 고속함정이다. 300톤급은 20mm 발칸포 1문과 CAL-50 1문을 갖추고 있으며, 동사가 함께 건조중인 500톤급은 40mm 자동포 1문과 20mm 발칸포 1문을 탑재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1972년 최초의 국산 경비함인 '학생호' 건조를 시작으로 각종 고속경비정, 초계함, 전투함은 물론 대형수송함(LPH), 상륙함(LST), 고속상륙정(LSF) 등을 건조해 온 전문 방산업체로서 금번 해경의 최신경비함 시리즈도 완벽히 건조해냄으로써 국가 해상방위력 증강은 물론 치안분야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해경의 노후중형함정 교체사업의 일환으로 한진중공업이 건조중인 500톤급 '태극호' 3척과, 300톤급 '해우리호' 4척은 영해 수호는 물론 국가경제 동맥인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우리의 해상주권과 국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 수상

한진해운(대표 박정원/www.hanjin.com)이 사단법인 한국 경영인협회가 주관하는 2008년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 중 최고상인 '월드클래스(World Class)' 기업부문 수상업체로 4년 연속 선

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7회째인 이 상은 (사)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등록된 기업으로서, 미국 Forbes지 선정 세계 2,000대 기업의 국내 기업 중, 해당업종에서 국제적인 인지도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2개 회계연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규모,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주주중심경영 등 5개 부문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25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거행된 시상식에 참석한 한진해운 이원우 전무는 "뜻깊은 상을 4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최고 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 최고의 종합 물류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진해운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경영'을 모토로 연료유 절감 및 CO2 배출량 절감에 본격 나섰다.

동 선사는 2007년 10월 연료유 관리 태스크포스팀(Task Force)을 구성해 항로별 선박의 연료 소모량 및 경제 운항 패턴을 쉽게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항·성능·연료 보급 분야의 절감과제 20여개를 선정해 집중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연료유 절감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료절감형 항로운영(BSP, Bunker Saving Program)확대 실시, 노선합리화, 선속 감소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상반기 연료유 약 10만 5,000톤, CO2 약 33만톤의 배출량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조선 사선에 정박 중 대기 오염 배출물 방출을 없애기 위해 육상전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및 연료



연소효율이 우수한 친환경 전자 제어엔진을 장착하고, 선체 저항을 감소시키는 연료 절감형 실리콘 도료를 사용하는 등 대기환경 보호 및 연료유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CO2 배출량 절감 결과는 그 동안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의지를 보여온 한진해운의 친환경 경영의 산물로서, 앞으로도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대상선

사회공헌활동 강화

현대상선은 9월20일 김성만 사장을 비롯한 윤리경영팀 등 사장직속 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모여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에서 '서울숲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임직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숲 곳곳에서 화단과 잔디밭 잡초제거 및 위해식물 제거, 가지치기, 비료주기, 우드칩 설치 등 숲 가꾸기 활동을 진행했다.

현대상선은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5차례에 걸쳐 본사 직원 5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본부별로 나누어 '서울숲 가꾸기 릴레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체육대회, 산행 등 그동안의 본부별 단합대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결속력 강화와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단합대회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김성만 사장의 판단에 따라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게 현대상선 측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김성만 사장은 "국내를 대표하는 해운기업으로서 현대상선은 그동안 대기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친화 경영을 추진해왔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

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은 앞으로도 환경친화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환경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유 발생률 억제, 폐기물처리기준 강화, 연료유 사용 감량, 이산화탄소(CO2) 발생량 및 오존과 과물질 관리, 유증기회수 시스템 등 대기오염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국내 업계 중 가장 많은 총 16척의 선박이 한국해양경찰청에서 해양오염방지에 모범적인 선박에 교부하는「GREEN SHIP」증서를 획득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연안경비대가 환경 및 안전 우수선박에게 수여하는「QUALSHIP 21」증서를 획득하고,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이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실시하는「GREEN FLAG」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우수 준수 선사로 선정되는 등 환경경영의 최고 선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밖에도 1사1촌 자매결연, 수해복구 지원, 태안기름제거활동 등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여직원 모임인 수평선회에서 매달 회비를 모아 아름다운 재단, 장애인 종합 복지관 등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 카네이션 판매 행사, 일일 호프 등을 통한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장서는 등 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흥아해운

부산 - 토카이 코치서비스 개시

흥아해운(회장 이윤재)은 9월말부터 부산과 토카이·오키나와·코치를 연결하는 신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항로에서는 지금까지 범주해운에서 스페이스 임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자사 운항 서

비스로 전환해 공급 스페이스 확대와 스케줄 안정화를 도모한다.

신설 서비스로의 코치 기항개시에 따라 기존 코치에 기항하고 이던 부산-토카이·토호쿠 항로를 개편, 코치를 기항지에서 제외시켰다.

신서비스는 'Korean Express' (330TEU)를 투입하는 정요일 위클리 서비스다. 기항지 로테이션은 부산(일)-시미즈(화)-토요하시(수)-오키나와(수·목)-코치(금)-부산순이다.

서비스 개시는 9월30일 부산 출항편으로부터, 최초의 항해는 시미즈·코치만 기항해 10월5일 부산 출항편으로부터 상기의 로테이션이 된다.

부산/토카이·토호쿠 항로는 'Heung-a Jakarta' (653TEU)에 의한 서비스로, 새로운 기항지·로테이션은, 부산(화)-시미즈(목)-오나하마(금)-센다이(토)-오후나토(토)-부산 순이다.

양현재단

부산대 연구기금 전달



양현재단(이사장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은 9월23일 부산대학교 물류혁신네트워크 연구소(소장 김갑환)에 2억원의 연구기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부산대 물류혁신네트워크 연구소는 항만 물류 관련 분야의 선진화를 통해 물류 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를 펼쳐

오고 있다.

양현재단은 국내 해운물류 연구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부산대 물류혁신네트워크 연구소에 연구기금을 전달했다.

최은영 이사장은 연구기금 전달식에서 "보다 실질적인 연구 활동으로 우리나라 항만 물류 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현재단은 장학사업, 의료지원 사업, 문화예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중 텐진항과 자매결연 再조인식

인천항과 중국 텐진항이 새롭게 자매항 결연을 맺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는 9월18일 중국 텐진항집단유한공사와 함께 인천항, 텐진항 간 자매결연 주체 변경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항과 텐진항은 지난 1997년 11월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으나, 인천항 관리운영주체가 당시 한국 측 서명 당사자였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인천항만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자매항 결연을 체결했다.

이로써 인천항만공사는 중국 옌타이항, 말레이시아 포트켈랑, 프랑스 르아브르항, 캐나다 밴쿠버항에 이어 출범 후 다섯 번째로 해외항만과 자매항 결연을 맺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자매항 체결은 김종태 사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맺는 것"이라며 "이번 자매항 협약식을 통해 두 항만 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 기술, 인적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 텐진항은 인천항과의 교역량 3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지난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710만 TEU를 기록한 바 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VTS 운영요원 도선현장체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주성호)은 9월16일부터 30일 까지 총 3회에 걸쳐 신항해상교통관제사 총 15명이 신항 도선구역(신항 북컨테이너부두 ↔ 가덕수로 B-buoy부근)에서 도선현장체험을 실시했다.

해상교통관제운영요원 도선(導船) 현장체험의 가장 큰 목적은 신항 부근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공사구간을 이번 도선(導船)체험을 통해 해상교통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본다는 의미에서 관제사와 도선사, 선박종사자간 상호 이해증진으로 업무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이번 도선(導船)체험을 통하여 부산항 신항의 안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제사들의 현장 감각을 유지하고, 그 체험 결과는 보다 효율적인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 관제 업무에도 적극 활용키로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부산항 신항해상교통관제(VTS)센터에서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산항 신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승선체험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재무 안정성 위한 자문회의 신설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사태 등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외 금융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가 재무자문회의를 구성, 운영에 나선다.

부산항만공사(사장 노기태)는 재무 안전성과 건전성 도모를 위해 9월19일 부산 중구 중앙동 BPA 회의실에서 재무자문 관련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재무자문단은 이수영 안전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4명의 경영, 회계 전문가와 이태장 스탠다드차타드증권 이사 등 금융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BPA는 이들 재무자문단에게 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자금 운용 등 수익성 제고방안,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 분석,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BPA관계자는 “재무자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정확하고 객관적인 경제동향 분석과 예측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재원 조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PA는 출범 원년 8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005년 104억원, 2006년 211억원, 지난해 386억원 등 4년 연속 흑자를 달성, 지난해 신용등급 AAA를 받은 바 있다.

선박안전관리공단 해양사고 사진전 개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지부장 장현재)는 지난 9월9일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유류피해

로 어려운 가운데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던 어선들에 대해 기관 무상점검 및 해양사고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무상점검과 해양사고사진전은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 한동안 운항하지 않고 있던 어선들의 기관 무요안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칫 헤이해질 수 있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태안군청, 태안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되었으며 어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실시된 사진전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지부를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선박을 좌초, 충돌, 화재, 기관파손 등 원인별로 분류하여 어민들의 이해를 돕고, 해양사고에 대한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장은 “앞으로도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관무상점검 뿐만 아니라 어선검사에 있어서 고객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엘넷

전자해도 SY뷰어개발사업 수주

물류IT 전문기업 케이엘넷(대표 박정천/www.klnet.co.kr)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전자해도 SY뷰어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전자해도(Electronic Navigation Chart)는 종이해도상에 나타나는 해안선, 등 심선, 수심,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위험물, 항로 등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모든 해도정보를 국제수로기구(IHO) 표준규격(S-57)에 따라 제작된 디지털 해도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전자해도의 경우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서 일반인

들의 전자해도 사용 활용도가 낮았는데, 전자해도 SY뷰어(ENC Special Yare Viewer)개발을 통해 전자해도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또한 전자해도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지리정보도로 활용, 해양 GIS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사용자용 전자해도 뷰어(ENC Viewer) 기능 개발 △행정지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 선, 면 객체의 입력 및 편집 기능 개발 △전자해도의 수심, 해안선, 등심선을 추출하여 저장하는 기능 개발 △전자해도 보안적용 관리프로그램 개발 △기존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내에 전자해도 시스템의 활용 연계 등이다. 케이엘넷의 박정천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자해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정보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응용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선급

공동인증서 발행 협정체결

사단법인 한국선급을 비롯한 한국인정원이 인정한 4개의 인증기관들과 한국산업안전공단(KOSHA)은 101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OHSAS 18001’와 ‘KOSHA 18001’ 공동인증서 발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선급을 비롯한 인증기관들은 한국품질재단(KFQ), 한국표준협회(KSA), 한국품질보증원(KQA),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QA)이다.

이번 협정으로 OHSAS 18001과 KOSHA 18001의 공동인증서 발행이 가능해져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받고자 하는 기업의 인증비용 절감 및 중복심사



배제 등 편의성이 도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기업에 선진 안전보건 관리기법의 확대 보급이 촉진되며 국제기준에 의한 안전보건 경영기법의 적용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직장보건안전경영시스템(OHSMS)에 대한 인증 표준인 직장 보건 안전 평가 시리즈 OHSAS 18001는 기업으로 하여금 표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실행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과 성장 유도로 작업장에서의 위험성과 유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KOSHA 18001는 관련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개별적 안전관리 활동이 작업공정의 진행단계,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 관리로 시작해 교육 및 점검과 상호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인증이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제16기 P&I SCHOOL 개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회장 이윤재)은 각 선사의 보험담당 실무자의 CLAIM 처리절차, 관련법령 및 해상보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제16기 P&I SCHOOL을 개설하였다.



동 강좌는 9월11일부터 11월6일까지 9주간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장소는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이다. 동 교육의 내용으로는 ▷해상보험 이론 기초 / 보험시장구조 ▷Loss Prevention/선박구조/해상근무 ▷충돌 및 유류오염사고, 접촉사고(FFO), 화물사고, 인명사고등과 관련된 CLAIM처리절차 및 관계법령, 관련보험의 처리 ▷ CASE STUDY 중심의 알기쉬운 해사판례 해설 등이다.

한국해양대학교

STX조선과 산학협력 체결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STX조선(주)과 산학협정을 체결했다고 9월23일 밝혔다.

부산시와 중소기업청과 연계된 이번 협약에는 선박 및 조선기자재와 관련한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기술 및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훈련 및 교육 시스템 공동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STX조선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 등 외국 선진국의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산하 90여개 관련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STX조선 김강수 사장을 비롯하여 STX엔진, STX엔파코, (주)한조, 세진산업(주), (주)이네테크, (주)광산 등 90여개 STX계열사 및 협력업체와도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폭적인 연구조직 개편 단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한 강중희 원장은 9월11일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강 원장은 개발원의 기존의 4본부 3실 1센터 체제를 4연구부 2실 체제로 개편하여, 핵심연구영역을 강화하고 조직 슬림화를 통해 대내외 연구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연구본부를 해양정책연구부, 해양물류연구부, 수산정책연구부, 해양국토연구부 4개 연구부로 재편하고, 각 연구부장에 연구위원을 배치했다.

이는 선임연구위원이 연구부서장을 맡던 기존 관행에서 과감히 탈치, 선임연구위원 아래 직급인 연구위원을 연구부장에 포함으로써 연구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연구부서장의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구감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연구부마다 선임연구위원을 연구심의역으로 두어 개발원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과제의 품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기로 했다.

미래 핵심연구사업을 위해서는 해양국토연구부 내에 해양산업·EXPO지원팀, 해양관광·문화연구팀, 남북해양협력팀을 신설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위한 연구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연구조직으로 슬림화하고 연구가 신속·효율·성과지향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재설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강신일 원장 취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 해병대전우회 해병대

강신길 사무총장(64세)이 취임했다. 국토해양부는 9월22일자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 강신길 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이채욱(李采郁) 삼성GE 대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신길 신임 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9월23일 취임식을 갖고 원장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 신임원장은 이로써 전임 박찬조 원장의 면직처리로 2개월가량 공석이었던 해양수산연수원장에 새로 취임해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강 신임원장은 해군사관학교 23기로 해병대에서 근무하다가 준장으로 예편, 그동안 해병대 전우회 사무총장 신성대학 초빙교수 등으로 활동해왔다.

한국해운조합

Marine Insurance School 개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이 조합원사 보험담당자, 관련업체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Marine Insurance School을 운영한다.

그동안 해상보험과 관련한 부분적인 교육은 있었으나, 해운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해상보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Marine Insurance School을 개설했다고 전했다.

교육일정은 부산 10월9일(목)~10일(금), 포항 및 울산지역 10월15일(수)~16일(목), 여수 및 목포지역 10월22일(수)~23일(목), 인천 10월29일(수)~30일(목) 각 2일간이며, 각 조합 지부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해상보험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으며, 주요 교육과정은 선박보험, P&I, 선박충돌, 유류오염사례분석, 선원재해보상, 해상법, 선하증권과 운송인의 책임 등이다.

또한 해상보험 전문가인 새한손해사정 노전구 대표이사, 법무법인 청해 서영화 변호사, KOMOS 김봉규 부장,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 등의 초청 강의와 조합 사업본부장 등 내부 전문가 강의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운조합은 조합원 및 유관단체 관련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및 관련 업무 수행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8년도 연안해운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동 통계연보는 연안해운 각 부분의 최근 10년간 (1998~2007년) 자료를 연도별, 선종별, 항로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항만 및 해난사고 현황을 비롯하여 조합사업 안내, 해운관련 용어해설 등을 종합 수록하였다.

한편 조합은 동 통계연보를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 유관단체, 조합원들에게 배부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관련 자료를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www.haewoon.co.kr)에 등록할 예정이다.

해양문화재단

2회 해양문학상 대상 '아, 연평도' 수상

해양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해양문화재단(이사장 최낙정)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한 '제2회 해양문학상' 최종심사에서 박정선(부산 남구)씨가 응모한 중편소설 '아, 연평도'가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8월 한 달간 바다를 주제로 중편소설, 희곡,

시, 동화, 동시 등 5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1215점(소설 37점, 희곡 13점, 시 802점, 동화 109점, 동시 254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총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예심과 본심을 거쳐 5개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입상작은 △대상 : 아, 연평도(박정선, 소설) △최우수상 : "출항 외(김영, 시) △우수상 : 검은 바다 갈매기(정경진, 희곡) △장려상 : 고래바위(이상윤, 동화) △가작 : 독도에 가봐(안영선, 동시) 등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국문인협회 김년균씨는 "모든 부문에서 수준 높은 당선작이 나왔으며, 이번 해양문학상은 해양문화 창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대상 수상작 '아, 연평도'는 서해교전의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작품으로 승화한 전쟁소설로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으로 싸워 나라를 지켜낸 젊은이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잘 그려내고 있다고 평했다.

그 외 소설부문에서는 '왕머구리' (정현교)와 '수바의 동쪽' (김부상), '말라카 해협' (김태식)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차점으로 순위에서 밀렸다.

시부문에서도 '출항' (김영), '北海' (조우리), '고래사냥' (김정웅), '어느 소년의 일기' (이상윤), '수화를 듣는다' (조아경) 등의 작품이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출항'이 해양진출의 주제와 표상 및 시어의 적절성이 뛰어나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희곡부문에서는 '검은 바다 갈매기' (정경진)와 '울몰' (김성희) 등 2개 작품이 최종심까지 올랐으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관해 아버지 시대와 아들의 시대를 거쳐 끈질긴 시선으로 조망한 '검은 바다 갈매기'가 허베이 유류오염사고를 배경으로 한 점 등 시사성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화부문에서는 '고래바위' (이상윤), '엄마의 선물' (김민지), '전어축제' (이다감), '이어 달리기' (송재선), '할머니의 물소중이' (권지연) 등이, 동시부문에서는 '독도에 가봐' (안영선), '까치집 우편함' (박해련), '소라껍질' (강성남), '파도 분교' (김영), '바닷가 무궁화' (정수우) 등이 최종심까지 우열을 겨루었다.

올해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30일 한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한국문인협회장상과 상금 500만원 및 해양문화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장려상과 가작에 대해서도 각각 해양문화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200만원 및 한국선주협회장상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장애우와 뜻깊은 한강수상체험 실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이정화)은 지난 9월24일 총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 SK해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의 후원으로 장애우 110여명을 초청하여 한강수상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한강수상체험활동은 장애우와 봉사자 2인1조로 짜여진 수상체험의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시작했으며, 장애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다양한 수상체험 활동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연맹총재는 이날 "지금과 같이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준 자원봉사단과 임직원 및 일반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앞으로도 한강수상체험 행사뿐만 아



니라 장애우 및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의미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민간단체에 사업비 지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은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 정화활동, 해양환경 조사·연구·홍보·교육 등을 시행하는 해양환경 관련 민간단체를 선정,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9월29일 밝혔다.

이번 정부지원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며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 해양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원금은 한 단체당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이다.

금번 선정된 해양환경 민간단체는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한국해양구조단 등 4개 단체이다.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 9월4일 ▷생태지평 ▷바다와 미래 ▷무지개 세상 ▷한국해안보존운동본부 등 4개 단체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 단체들은 해양환경 보전 교재 발간, 갯벌생태 조사, 해양환경 교육강좌 실시, 연안지역 방치쓰레기 정화활동 등을 전개하며 내년에도 해양환경 관련 민간단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